

영화



‘한반도’·‘괴물’ 등 토종 블록버스터 잇단 개봉

■ 광주 찾은 ‘내 청춘에게 고함’ 김 영 남 감독



한반도

괴물

“올 여름 할리우드는 없다”

▲한반도는 ‘실미도’와 ‘공공의 적’ 시리즈를 만들어 흥행신화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올 여름 유난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에게 딸을 빼앗긴 남자 박강두(송강호)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메이드 인 코리아’ 자부심 당찬 도전

리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보다는 적정 수준의 관객을 고려함으로써 기대치를 다소 낮추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과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청춘의 실제 담백하게 투영”

13일 개봉한 ‘내 청춘에게 고함’의 김영남(34) 감독이 홍보를 위해 12일 광주를 찾았다.



장편 데뷔작...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

“청춘이라는 소재의 상징성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는 김 감독의...

“상업 영화든 예술 영화든 관객들이 익숙한 내용보다는 잃어버린 정서나 감성에 맡길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김 감독.

해의 영화계 이슈 ‘해적’ 인기타고 조니 뎀, A급스타 급부상

‘캐리비안의 해적2 : 망자의 함’이 과격시제의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일 북미지역 4천133개 스크린에서...



‘캐리비안의 해적2 : 망자의 함’

이 영화의 제작자인 제리 브룩하이머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캐리비안의 해적”의 경우 주연배우로 조니 뎀의 이름이...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는 그에게 ‘이러적인 주류 흥행작’이라고 할 수 있다. 조니 뎀은 1편인 ‘캐리비안의 해적 : 블랙펄의 저주’로 지난 2004년 아카데미상 주연상 후보에...

안젤리나 졸리, 출산 후 첫 영화는 쿵후 애니메이션



안젤리나 졸리가 딸 사일로 누벨 졸리-피트를 출산한 이후 첫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코미디영화 ‘쿵후 팬다’...

블랙은 식당에서 국수를 뽑는 일을 하면서 쿵후를 사랑하는 팬다 곰 포 역을 맡는다. 포는 쿵후를 너무 좋아하지만...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reas including 정우동, 한국공인중개사, 등지공인중개사,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아름다운부동산, 국민공인중개사, and 혁신적 교육사업.